

조세 & 중국



May 2015

국외특수관계자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관리 강화

[배경]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3월 18일 <기업의 국외특수관계자에 지급하는 비용 관련 기업소득세 문제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16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이 모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경영자문료 및 무형자산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하면서 과세소득 계산 시 이를 공제하는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국적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통하여 중국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원을 잠식하고 국외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 중인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의 이념을 중국세제상 구현하기 위한 일환이며, 당해 공고는 발표일인 3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세부 내용]

당해 공고는 국외특수관계자에 지급한 비용이 세법상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판단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2.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비용 지급 시, 주관 세무기관은 관련 계약 또는 협의문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거래가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경영활동도 수행하지 않는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과세소득 계산 시 공제할 수 없다.
4. 국외특수관계자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의 경우 해당 용역으로 인하여 기업이 직접/간접적 이익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하기에 해당하는 용역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과세소득 계산 시 공제할 수 없다.
 - 1) 기업이 부담하는 기능 및 위험 또는 경영과 무관한 용역
 - 2) 투자자의 투자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자가 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통제, 관리 및 감독 등의 용역
 - 3) 동일한 용역을 제3자로부터 제공받았거나, 기업 자체적으로 수행한 용역

- 4) 기업이 모집단에 소속되어 부수수익을 얻었으나, 이에 대하여 집단 내부의 특수관계자가 실시하는 구체적 영역활동을 제공받지 않은 경우
- 5) 이미 기타 특수관계거래를 통하여 보상을 획득한 영역
- 6) 기업에 직접/간접적 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타 영역
5. 국외특수관계자가 제공한 무형자산을 사용하여 특허권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가 무형자산 가치 창출에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각자가 향유해야 하는 이익을 확정해야 한다. 무형자산의 법률적 소유권만을 보유하며, 무형자산 가치 창출에 공헌하지 않는 국외특수관계자에 지급한 특허권사용료는 과세소득 계산 시 공제할 수 없다.
6. 기업이 금융상장을 주요 목적으로 국외에 지주회사 혹은 금융회사를 설립하고, 금융상장 활동으로 발생한 부수이익을 특허권사용료로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경우, 이를 과세소득 계산 시 공제할 수 없다.
7.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세무기관은 해당 거래가 발생한 납세연도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특별납세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시사점]

당해 공고를 통하여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향후 중국 과세당국은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영역(Intra group service) 대가 또는 무형자산 사용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세무상 손금처리 하는 중국 진출 외국기업을 주요 대상(Target)으로 삼아 세무조사를 시도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당해 공고를 통하여 국가세무총국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영역(Intra group service) 대가의 적정성 관련하여 기존 OECD Guideline에 적시된 판단요소(경제적 이익을 득하였는지 여부, 주주활동이나 중복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즉, 당해 공고에 따르면 국외특수관계자가 제공한 것으로서 세무상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영역이 되기 위해서는 투자자인 국외특수관계자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주주로서 자회사를 통제하기 위한 활동(소위 주주활동)이 아닌 중국 현지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OECD Guideline에서는 연결보고서 작성 등 모회사의 자체의 보고의무와 관련된 활동 및 주주회의, 감독기구 비용 등 모회사 자체의 법률적 구조에 관한 활동 등을 주주활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해 공고 또한 이러한 관점 하에서 주주활동 및 중복활동의 유형을 비교적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중국 세무당국은 이를 근거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주주활동 및 중복활동의 범위를 매우 폭넓게 해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당해 공고는 중국 진출 다국적기업이 무형자산 사용을 통하여 창출한 초과이익 배분 시 이를 무형자산의 법률적 소유권자인 국외특수관계인에 모두 귀속시킬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 모두의 공헌도를 고려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중국이 UN Practical Manual(중국,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이 중심이 되어 만든 이전가격 Manual) 등을 통하여 주장한 Location Specific Advantage(무형자산 사용대가는 무형자산이 사용된 지역의 이점을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한다는 개념)를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중국시장은 노무비 절감 효과, 규모의 경제 등의 Location Specific Advantage가 존재하며, 이러한 이점으로 무형자산의 가치가 증대되는 측면이 존재하는바, 무형자산에 대한 귀속이익 산정 시에도 중국기업이 기여하는 이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해 공고 시행 이전에도 중국 세무당국은 다국적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무형자산 사용대가의

손금취급에 대해서 까다로운 입장이었는데 향후에는 당해 공고를 바탕으로 보다 공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초과이익의 상당부분이 중국기업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전가격 과세조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중국 세무당국의 이러한 문제제기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세법상 원가분담 약정제도 등을 활용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가분담약정은 국외특수 관계자와 공동으로 무형자산의 창출단계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개발자들 간에 분담하는 약정으로서, 거래당사자 별 공헌도와 기대수익에 대응하는 원가분담약정의 체결을 통하여 무형자산 사용대가에 대한 중국 세무당국의 과세위험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원가분담약정 체결은 독립거래원칙에 기반한 법률상 계약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므로, 계약관계에 대한 세무상/법률상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요컨대, 당해 공고는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OECD Guideline 및 UN Practical Manual의 내용 중 자국에 유리한 이전가격 과세논리를 취사선택하여 이를 구체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모회사에 경영자문료나 무형자산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자문료의 경우 이전가격관점에서의 정상가격 여부를 판단요소 별(경제적 이익을 득하였는지 여부, 주주활동/중복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무형자산 사용대가의 경우 거래당사자 별 공헌도 혹은 기대수익을 분석하여 현행 지급하는 사용료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 구비하는 등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조세그룹

- | | | |
|-----------|---------------|-----------------------|
| ▪ 김동수 변호사 | ☎ 02-528-5219 | ✉ dskim@yulchon.com |
| ▪ 이경근 세무사 | ☎ 02-528-5238 | ✉ kygelee@yulchon.com |
| ▪ 심석인 회계사 | ☎ 02-528-5484 | ✉ sishim@yulchon.com |

중국팀

- | | | |
|--------------|--------------------|----------------------|
| ▪ 변웅재 변호사 | ☎ 02-528-5797 | ✉ ujbyun@yulchon.com |
| ▪ 허욱 변호사 | ☎ 02-528-5715 | ✉ whuh@yulchon.com |
| ▪ 태충남 중국 변호사 | ☎ +86-10-8567-0828 | ✉ taizhn@yulchon.com |
| ▪ 한득희 미국 변호사 | ☎ 02-528-5358 | ✉ dhhan@yulchon.com |

법무법인(유) 율촌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법무법인(유) 율촌 서울 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대치동, 섬유센터 12층)
TEL : +82-2-528-5200 FAX : +82-2-528-5228
E-mail : mail@yulchon.com

■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

Unit 03, 4th Floor, Kumho Asiana Plaza,
39 Le Duan St., Ben Nghe Ward, Dis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 +84-8-3911-0225 FAX : +84-8-3911-0230
E-mail: ujah@yulchon.com

■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27th floor, East Wing, Lotte Center Hanoi,
no. 54 Lieu Giai street, Cong Vi ward, Ba Dinh district,
Hanoi, Vietnam
TEL : +84-4-3837-8200 FAX : +84-4-3837-8230
E-mail: tschung@yulchon.com

■ 중국 북경 사무소

1209, 12F, South Tower C, Raycom InfoTech Park, No. 2,
Ke Xue Yuan Nan Lu, Haidian District,
Beijing, 100190, P.R. China
TEL : + 86-10-8567-0828/0768 FAX : +86-10-8567-0738
E-mail: beijing@yulchon.com

■ 미얀마 양곤 사무소

Junction Square Shop House, Building No. 2, 3rd Floor,
Between Kyun Taw Road and Pyay Road, Kamayut Township,
Yangon, Myanmar
TEL : +95-94-3088-377
E-mail: ujah@yulchon.com

■ 러시아 모스크바 사무소

12th Fl. White Gardens Business Center, 7 Ulitsa Lesnaya,
Moscow, Russian Federation, 125047
TEL : +7-495-510-5200 FAX: +7-495-510-5228
E-mail: leehj@yulchon.com